

세계화 · 정보화 물결속의 우리 출판미래

제16회 출판경영자세미나 열려... 130여 회원사 참가, 진지한 토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마련한 제16회 출판경영자 세미나가 <세계화시대의 한국출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15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조선포텔에서 열렸다.

130여 회원사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방을 목전에 둔 한국 출판업계의 대응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출판환경의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낙준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진현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세계화 시대의 한국 출판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했고, 임광수 문화체육부 저작권과 과장이 'WTO체제하의 저작권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국제화시대의 출판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벌인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은 등지출판사의 황근식 대표, 오늘출판사의 이종천 대표 등이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대책, 저작권법 개정안의 실제 적용 등에 관해 질문했고, 출협 회장단과 문화체육부 임광수 과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세계화시대 한국 출판의 방향'

김진현(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50년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초강대국의 시대가 끝나고, 20세기가 끝나고, 150년의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250년의 산업시대가 끝나고, 300년의 시민국가 민족 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500년의 근대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 역사적 구분으로서의 고대 중세 근대에서 탈근대 초근대 근대후기라고 불리는 새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사학자 존 루카스 교수는 "20세기의 끝남은 곧 근대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근대의 종언은 휴머니즘, 부르주아문화, 과학적 객관성의 이념, 책의 시대 등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루카스 교수가 주장한 책의 시대 끝남이라는 말이 곧 출판산업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출판원료, 출판사, 출판과정, 출판문화, 출판시장에서 출판인들에 이르기까지의 출판산업 모든 분야가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변질, 돌연변이, 도약, 후퇴 등의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한국출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는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출판환경의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

재편성될 지식산업으로서의 출판은

곧 출판인의 혁신의지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세계적 지식산업으로 확장하고 흡수를 의미한다. 언론, 영상, 오락, 교육, 출판, 연구산업 간의 국경이 없어지고 지식산업의 지리적 국경도 사라지는 '세계적 지식산업 군집'으로의 재편성이 진행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선진화는 양이 아니라 질이요, 규모가 아니라 격으로 성취해야 한다. 그것은 선진국을 지향하되 미국·일본·러시아형이 아니라 스위스·스웨덴형이어야 한다.

양은 작되 그 질의 우수함으로써 자기 특화된 부문은 대(大)선진국조차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결정적 선도 부문을 갖추어야 한다. 스위스의 전기기계, 엔진, 정밀 화학, 초콜릿과 커피가 그런 것이다. 스웨덴의 광산기계, 볼 베어링, 운반기계, 환경 장치 등은 미국 일본조차 이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리적·외형적 규모는 작으나 그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념 시스템이 우수해서 그 격이 높은 것도 스위스와 스웨덴이다. 스위스의 적십자 운동과 중립평화, 스웨덴의 노벨상과 사회개량주의적 복지제도 등이 그것이다.

우리 한국도 전세계를 상대로 특화 가능한 잠재부문 문화·산업·기술·정부부문에서 몇가지 결정적 중요 요소는 오늘의 선진국보다도 압도적 선단을 성취하여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산업·기술·정보 시스템도 한국 것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략적 선단(先端), 상위부문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2020년 쯤의 한국 경제는 그 부가가치 구성의 대부분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



지난 15일 열렸던 출판 경영자세미나 때 모습.

운 산업, 그것도 정보 지식 문화산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000명 정도의 빌 게이츠 같은 벤처기업가, 100명 정도의 스티브 버그 같은 영화감독, 100명 정도의 정명훈 같은 음악가, 5개 정도의 맥그로힐이나 하퍼 같은 출판사 등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진취적인 의지와 '혁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WTO 체제하의 저작권 대책'

임광수(문화체육부 저작권과 과장)

전세계가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전되어 가면서 지적인 창작물의 산업적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이를 통상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타의 나라들이 자국과 같은 정도로 보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금년초 지적 소유권 문제를 발단으로 빚어져 한때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는 우리가 국제 질서에 참여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WTO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가 머지않아 가입하게 될 베른협약에는 지난 5월 15일 현재 이미 전세계 111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지난해 미국이 WTO 이행법안에서 지난 1989년 베른협약 가입시에 취했던 불소급 보호 원칙을 철회함으로써 소급 보호를 배제하는 국

가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중요한 통상문제로 삼아 여타의 다른 부문과 연계하여 문제삼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연합과 같은 강대국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환경의 도래는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도도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가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는 만큼 우리의 저작물도 외국에서 보호받게 되므로 우리의 저작물이 해외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 사회 속에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상품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기 시작했던 일본의 예는 우리가 막연히 불안해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문화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정리·허연 기자